인디밴드 '난장 518분' 무박 2일 광주 여름밤 달군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유명 뮤지션 11개팀 참가
내일 5·18광장서 공연

'로맨틱펀치'

'킹스턴 루디스카'

'에이프릴 세컨드'

5·18민주광장서 518분 동안 인디밴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일환으로 19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Korea 인디밴드페스티벌 518분(이하 페스티벌 518분)'은 광주의 아픔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등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노래를 노래하다'라는 부재 아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특별한 음악을 선보이고, 참가자들은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며 음악으로 상흔을 승화한다.

이날 공연에는 대한민국 라이브음악을 대표하는 11개 팀이 참가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꿈, 자유를 담은 노래를 각자 스타일대로 펼쳐낼 예정이다.

'페스티벌 518분'에 참석하는 뮤지션은 ▲국내 스카밴드의 제왕 '킹스턴 루디스카' ▲경쾌함과 에너지·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구사하는 '타카피' ▲인디와 록이라는 아이러니한 조합이 매력적인 '차가운 체리' ▲몽환적인 감성의 모던 록을 구사하는 '헤이즈문 밴드' ▲매력있는 실력파 우량아 밴드 '슈퍼키드' ▲'별빛이 내린다'등과 같은 대히트곡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밴드 '안녕바다' ▲실험음악 선두 '3호선 버터플라이' ▲독보적인 매력의 스타일리시 신스락 밴드 '에이프릴 세컨드' ▲강렬하고 매혹적인 보랏빛의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록밴드 '뷰렛' ▲긴 말이 필요없는 실력파 락밴드 '해쉬' ▲한국형 감성 로큰롤의 방향성을 제시한 밴드 '로맨틱펀치' 등 11개의 국내 실력파 뮤지션들이 각각 30분 정도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Korea인디밴드페스티벌 518분'이라는 행사 제목이 말해주듯 음악 축제는 '518'이라는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20일 새벽 2시까지 무박 2일간(518분) 인디밴드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이 클라이막스에 오를 오후 9시 20분 무렵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1개의 밴드들이 참여해 '페스티벌 518분' 주제가인 '숨소리'를 부른다.

'숨소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겪은 한 젊은이가 제37주년 5·18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보며 당시의 아픔과 상처를 희망의 감정으로 표현한 4분정도의 곡. 차분한 감정선에서 점차 희망적인 클라이막스로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된 발라드 곡으로 지난 2017년 7월 27일에 발매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fringefestival.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료공연. 062-670-791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지역 대학서 의재 허백련 다룬 첫 논문

홍익대 대학원 최혜영씨
'의재·연진회 연구' 석사 학위

허백련 작 '武陵桃源'

남종화의 대가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룬 책들은 여러권이 나와 있다. 학위 논문도 출간됐지만 광주를 비롯한 지역 대학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학계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지역 출신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처음으로 허백련 선생을 다룬 석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논문은 내년이면 창립 80년을 맞는 의재의 제자들 모임 '연진회(鍊眞會)'의 활동상까지 정리했다.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한국미술사 전공 최혜영(29·사진)씨가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 연구'로 최근 석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 출신인 최씨는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를 졸업했다.

"의재 선생은 우리나라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분인데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아 의외였어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위주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의재 선생과 후학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고향과도 자연스레 연결돼 연구하게 됐습니다."

논문은 일생에 걸쳐 남종화의 철학을 고수, '최후의 남종화가'로 불렸고 남종화의 전통을 이어가며 한국 수묵채색화단의 큰 산맥을 이룬 의재 선생의 삶과 창작 세계를 시대별, 작품별로 세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재 선생과 함께 광주화단을 이끌며 현재까지 지역 수묵채색화단의 대표 화가들로 성장한 연진회의 활동상을 자세히 조사했다. 회원들은 전통적 남종화풍 뿐 아니라 서울 지역 화단과의 연계, 유학 등을 통해 독창적 회화 세계를 정립했고 이후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와 필법으로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다.

논문에는 의재선생의 작품을 비롯, 박행보·문장호·양계남·장찬홍·허의득·김영삼·박태후 등 연진회 회원들의 작품 도판 235개를 실었으며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연진회 회원 입상작품, 전라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심사위원 참여 목록 등 풍성한 자료도 담았다.

"우리나라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하고 원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자료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전통 남종화의 형식에서 탈피해 본인만의 화풍을 일군 연진회 소속 많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려 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준비중인 최씨는 앞으로 지역 화단에 대한 자료를 찾고 연구를 구체화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윤학자 여사 일대기 담은 창극 공연

내일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5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창극 '푸른바다의 수선화'를 선보인다.

창극 '푸른바다의 수선화'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학자(1912~1968·일본명 다우치 치즈코)여사가 3000여 명의 고아를 돌보며 공생원에서 일생을 바친 일대기를 담은 작품이다.

윤학자 여사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리의 외동딸로 태어나 공생원 설립자이자 전도사였던 윤치호(1909~1951)선생과 결혼해 목포에 정착했다. 한국전쟁 당시 남편인 윤치호 선생이 실종된 이후에도 홀로 공생원을 지켰으며 196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1968년 10월 윤학자 여사가 세상을 떠나자 목포시에서 최초로 시민장을 치러 그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학자 여사 역으로는 박정희 단원이 윤치호 선생 역으로는 윤세린 단원이 출연한다. 관람료 성인 1만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 문의 061-285-6928.

/전은재기자 ej6621@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 학술대회·초대작품전

19~22일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원장 김병석)은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 2017 광주대회 국제학술대회 및 초대작품전'이 19일부터 2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조형, 의미와 형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의 개막식 및 국제학술대회는 19일, 초대작품전은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초조형학회 류경원(충북대 교수) 회장과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을 비롯해 대만, 일본, 중국 등 국내·외 기초조형학회 전문가 및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다.

학술대회에는 중국 동화대학교 유영 교수, 일본 야마나시대학교 무라마츠 토시오 교수, 말레이시아 퍼스트시티대학교 시오 인융 교수 등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는 2년에 한번씩 국가와 지역을 순회하는 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 초대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제주도에 이어 8년 만에 주최국이 됐다.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는 예술·디자인 전 분야에 관계된 '기초조형'을 중심으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조형의 사회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각국의 기초조형학회의 연합체다. 문의 062-601-455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프리카 타악공연·댄스 파티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내일 음악회

'한여름밤, 아프리카 댄스파티를 즐기자.'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아프리카 댄스 파티 'Make Your Soul Free!'를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개최한다. 아프리카 고유 음악을 감상하고 현지의 춤을 배우는 음악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세습음악가 아미두 발라니가 전통악기 고니를 연주하며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냐포가 강렬한 타악 공연을 선보인다. 또 이들의 연주에 맞춰 아프리카 무용수 넬리 아후가 지역 춤을 소개하며 관객과 함께 댄스 파티를 연다.

서아프리카 아두망 치킨 요리 '티아기'와 서아프리카 전통차 '비샵'아프리카 매듭 팔찌 만들기 등 아프리카 음식 및 문화를 체험하는 부스도 운영한다. 수공예, 먹거리, 목공예, 타로카드 등 산업단지 플리마켓 '럭키장터@소촌'도 함께 연다.

16일에는 디제잉과 함께 하는 '서아프리카 음악의 밤'을, 다음 달 21일에는 'Be Together, Be Happy'가 열린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960-36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